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의조직적강령

디엘로트루다

디엘로트루다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의조직적강령
1926

차례

서론	3
역사적도입	6
2001 년의추가사항	9
서문	10
총칙	14
1. 계급투쟁, 그역할과의미	14
2. 폭력적사회혁명의필요성	15
3. 아나키스트와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	15
4. 민주주의에대한반대. 민주주의는부르주아자본주의사회 의한형태일뿐	17
5. 국가와권위에대한부정	18
6. 사회적투쟁과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	19
7. 이행기	22
8. 아나키즘과조합주의	24
건설의원칙	26
생산	27
소비	28
토지	29
혁명의방어	30
조직의원칙	33
1. 이론적단결	33
2. 전술적단결, 혹은집단행동	33
3. 공동책임	34
4. 연방주의	34

서론

1926 년, 추방된 러시아 아나키스트의 그룹인 디엘로트루다 (노동자의 조직) 이 프랑스에서 이소책자를 출판했다. 이것은 학술적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1917 년의 러시아 혁명의 경험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들은 옛 지배 계급을 몰아내는 데 역할을 하였고, 노동자와 농민의 자주적 경영을 꽃피우는 데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주의와 자유의 신 세계에 대한 낙관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국가 자본주의와 볼셰비키 일당 독재의 유형으로 대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혁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러시아에는 약 1 만명의 아나키스트 활동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 1 만명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네스토르 마흐노가 선도하던 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0 월의 볼셰비키 집권을 만들어 내었던 혁명 군사 위원회에는 최소한 4 명의 아나키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2 월 혁명 이후 아나키스트들은 공장 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데에 있다. 공장 위원회는 현장에 근거하고 있었고, 노동자 대중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되어 공장을 경영하고, 다른 현장과 협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나키스트들은 광부, 항만 노동자, 우정 노동자, 제빵 노동자들 사이에서 특히 영향력이 강했고, 혁명 전야 페트로그라드에서 개최된 범 러시아 공장 위원회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나키스트들은 이 위원회들을 혁명 이후에 자리잡을 노동자의 자주 경영의 근간이 되리라 바라보았다.

하지만 1917 년 10 월의 혁명적 정신과 단결은 오래가지 않았다. 볼셰비키들은 그들의 “일당” 권력에 방해가 된 다바라 본좌파 세력들을 탄압했다. 아나키스트들과 일부 좌파들은 노동 계급은 자체적 위원회와 소비에트를 통해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볼셰비키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은 아직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기에 볼셰비키들이 “이행기”의 “이행 수단”으로써 집권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평범한 민들의 자신감 결여와 권위주의적 집권은 결국 노동 계급의 이득과 희망, 꿈에 대한 배신으로 나타났다.

1918 년 4 월, 모스크바의 아나키스트 센터들이 공격받았다. 600 명의 아나키스트들이 수감되었고, 십수명이 살해당했다. 그 명분은 아나키

스트들이“통제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의미한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말의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아나키스트들이 볼셰비키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흑위대를 결성하여 세카 (KGB 의선조들) 의 잔혹한 도발과 폭력에 맞서 싸우려 했다는 것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했다. 한 분파는 볼셰비키와 함께하기로 했고, 효율성에 대한 고려와 반동에 대한 단결을 위해 볼셰비키에 합류했다. 다른 분파는 혁명의 성과를 그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이라 본 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우크라이나의 마호노주의 운동과 크론슈타트의 봉기는 최후의 중요한 전투들이었다. 1921년에는 반권위주의적 혁명은 소멸했다. 이때 배는 국제 노동자 운동에 깊고 오래가는 후유증을 남겼다.

저자들은 이러한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에 기여하기 위해 그들은 “강령”이라 불리우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러시아 아나키스트 운동이 현존하는 노동자 계급 운동 안에서 볼셰비키 및 여타 정치 집단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히 거대하고 유효한 존재감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서 교훈을 삼는다. 이 문건은 아나키스트들이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고, 어떻게 효과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친 이정표를 제공한다.

“강령”은 아나키즘에 반대하고 모순되는 형태의 그룹을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단순한 진리를 천명한다. “강령”은 우리가 명시적 정책, 관료의 역할, 회비의 징수 등을 담당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는 더 크고 효과적인 민주적 조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강령”이 최초로 출간되었을 때, 이 문건은 에리코 말라테스타나 알렉산더 베르크만 같이 당대의 유명한 아나키스트들로부터 공격받았다. 그들은 “강령”이 “볼셰비즘으로부터 단 한 발짝 멀”며, “아나키즘을 볼셰비키화 하려는” 시도라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과장된 것이었지만, 아마도 “강령”이 아나키스트 총동맹을 제안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 조직과 그 외부의 아나키스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강령”은 독립된 아나키스트 조직들이 공통된 전망과 전략으로 바라보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 바라보지 않았다.

“강령”의 반대자와 이후의 지지자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나키즘을 떠나 자유의지주의적 코뮌주의”로 향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것

아나키스트총동맹은사회혁명을희망하고, 나아가계급사회의철패를열망하는반권위주의조직으로써, 사회골간의두계급, 노동자와농민을동등하게옹호한다. 총동맹은두계급을해방하는과업에동등한역량을투여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조합과도시의혁명적조직들의선구자이자이론적이정표가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착취당한농민대중에대해서도동일하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자들에게혁명적노동조합이하는역할을수행할혁명적농민조직을, 나아가반권위주의적원칙위에세워진농민조합을실현하고자노력해야한다. 나아가,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인민대중에서태어났기에, 그들의삶이현현하는모든과정에참여해야한다. 그들에게조직의영혼, 인내와공세의영혼을불어넣어야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이그목적을, 사회혁명을향한이론적이고역사적인과업을다하고, 이해방의과정에서조직적선봉이되기위한방법은이방법밖에없다.

네스토르마흐노, 아이다멧, 표트르아르치노프, 발레프스키, 린스키
1926

이다. 두단어는완전히상호동질적이다. 이문건은러시아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혼란을극복하는데실패하였다는사실을지적하고, 이로써전국적협동의부족과, 비조직화와, 정치적불확실성을촉발하였다는점을지적한다. 이를다른말로표현하면무효하였다는것이되겠다. “강령”은아나키스트운동안에서토론을촉발하고자작성되었다. 문건은권위주의적정치와의타협을향하는것이아니라근본적으로아나키즘적원칙을가진효과적인혁명행동을구성하는조직을만들필요성을지적하고있다.

오늘날, “강령”은결코완벽한계획이라볼수없다. 1926 년에도“강령”은완벽하지않았다. 이문건은그사상의일부분을충분히깊이설명하지않았다. “강령은중요한문제를전혀다루지않기도했다. 하지만”강령“이작은소책자일뿐, 26 권짜리백과사전이야님을기억하라. 저자들은서문에서이문건이‘성서’같은것이야님을분명히하고있다. ”강령“은분석이나계획을완성한것이아니다. ”강령“은필요불가결한토론을위한발제문일뿐이다. 그리고, 상당히훌륭한기조발제문이다.

오늘날누구도이문건의의의를잊지않게하도록, “강령”의기본적이상은여전히국제아나키즘운동의주류보다앞서있다는것을언급하고자한다. 세계를더낫게변혁하고싶은아나키스트에게이소책자는방향성과도구를보여줄것이다.

앨런맥시몽, 1989

역사적 도입

네스토르 마흐노와 표트르 아시노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된 ана키스트들과 함께 훌륭한 격월간지 디엘로트루다를 출간했다. 디엘로트루다는 ана키즘적 코뮌주의 이론에 근간한 질 높은 비평지였다. 수년 전에 이들이 모스크바의 뷰티르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때, 그들은 이 평론지에 대한 생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실현시켰다. 마흐노는 3년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기사를 썼다. 1926년에 이 그룹에는 그 직전에 러시아에서 탈출한 아이다멧 (“크론슈타트 코뮌”의 저자)가 합류했다. 그해에 그들은 “조직적 강령”을 출판했다.

“강령”이 출판되자, 그 문건은 국제 ана키스트 운동의 분노와 매도를 맞이해야 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러시아 ана키스트인 볼린(당시 역시 프랑스에 있었고, 세바스티안 포레와 ‘합테제’를 공동으로 창시하여 ана키즘적 코뮌주의, ана키즘적 조합주의, 개인주의적 ана키즘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었다.)이었다. 물리스타이머, 플레신등도 “강령”에 반발하여 “아나키즘을 계급의 이론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ана키즘을 단일한 관점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하는 답문을 작성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디엘로트루다는 1927년 2월 5일, ‘국제총회’에 의초대장을 발송했고, 같은 달 12일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사전회의에는 디엘로트루다 외에도 프랑스 청년 ана키스트의 대변인인 오데온, 불가리아인 파벨, 폴란드 ана키스트 그룹의 란코, 오로본 페르난데스, 카르보, 히바넬 등의 스페인 투사들, 이탈리아인 우고 페델리, 중국인 첸, 프랑스인 도플랭-모니에르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첫 회의는 파리의 한 카페의 작은 뒷방에서 개최되었다.

임시회의체가 준비되었다. 이 회의체는 마흐노, 첸, 란코로 구성되었다. 2월 22일에는 모든 ана키스트 그룹들에 회람이 발송되었다. 국제총회는 1927년 4월 20일, 파리 근교 라이레로즈의 레로즈극장에서 열렸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비폴치, ‘펜시에 로이 볼론타’ 잡지를 대표하는 루이지 파브리와 카밀로 베르네리 와 우고 페

이 잘못된 해석이 우리 운동을 해체하여 왔다. 이제 공고하고 뒤집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끝낼 시간이다.

연방은 개인과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자유로운 합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합의와 그에 근거한 연방적 조직은 그 합의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들과 조직이 합의한 의무를 거의 모두 다하고, 공동체적 결정을 따른다는 조건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프로젝트에서, 연방적 기반이 얼마나 광범위한 조건에, 집행이 없는 결정은 있을 수 없다. 특히 노동자와 사회혁명에 관한 의무를 져야 하는 ана키스트 조직에게, 이것은 더욱 당연한 문제다. 결과적으로, 연방주의적 ана키스트 조직은 각 구성원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과, 개별적 자유와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각 구성원이 확고한 조직적 임무를 다할 것을, 공동체적 결정의 집행을 요한다.

이 조건에서만 연방주의의 원칙이 살아나고, ана키스트 조직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결정적 목적을 향해 순항할 수 있다.

아나키스트 총동맹의 개념은 ана키스트 운동의 모든 세력의 협동과 동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동맹에 가입한 모든 조직은 유기체의 세포와 같다. 모든 세포는 그 사무국을 통해 조직의 정치적, 기술적 작업을 집행하고 이론적으로지도해야 한다.

동맹에 가입한 조직의 행동적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동맹 집행 위원회라는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집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 동맹이 만든 결정의 집행을 담보하는 것, 2. 동맹의 이론적 입장과 총체적 전술에 따라, 각개 조직에 이론적, 조직적 지침을 주는 것, 3. 운동의 전체적 상황을 관측하는 것, 4. 동맹 내 모든 조직들의 조직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 5. 동맹 외 조직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집행 위원회의 권한, 책임과 실질적 과업은 동맹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아나키스트 총동맹은 구체적이고 확고한 목표를 가진다. 사회혁명의 승리라는 명분을 위해, 총동맹은 노동자와 농민들 중 가장 혁명적이고 매우 핵심적인 분자들을 매혹시키고 흡수해야 한다.

재앙을 제거한다. 공통된 전술은 운동의 모든 힘을 집중시켜 확고한 목표를 향한 공통된 지침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공동책임

개인의 책임으로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철폐되어야 하고, 아나키즘은 동의 대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혁명적 (사회적, 정치적) 삶의 영역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집단적이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혁명을 위한 활동은, 개별 투사들의 개인적 책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아나키스트 총운동의 집행기관으로써 아나키스트 동맹은 무책임한 개인주의적 전술을 공고하게 반대하고, 집단 책임의 원칙으로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의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동맹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에, 모든 구성원은 동맹의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4. 연방주의

아나키즘은 언제나 중앙 집중적 조직을 거부해 왔다. 그리고 그 거부는 대중의 사회생활의 영역과, 정치적 행동의 영역 모두에 대한 것이었다. 중앙 집중적 체계는 비판적 정신과 주도권, 개인의 독립성의 소멸에 근거한다. 그리고 대중이 ‘중앙’을 맹종하도록 만든다. 이 체계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결과는 사회생활과 조직의 생활을 예측시키고 기계화시키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언제나 중앙화가 아닌 연방주의를 주장하고 옹호해 왔다. 연방주의야말로 개인과 조직이 공통된 명분에 복무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높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사회생활의 필요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모든 개인의 능력이 건강하게 현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대오 내에서 연방주의의 원칙은 상당히 자주 왜곡되어 왔다. 연방주의의 원칙은 마치 개인이 조직에 대한 어떠한 무도하지 않은 채 개인의 ‘에고’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다.

텔리가 “강령”을 지지했다. 프랑스의 두 대표자인 오데온과 세베린 페란텔 역시 “강령”을 지지했다.

이곳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제안되었다.

1. 계급 투쟁이 아나키스트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임을 인지한다.

1. 아나키즘적 코뮌주의가 운동의 근간임을 인지한다.

1. 조합주의가 투쟁의 주된 방법론이어야 함을 인지한다.

1. 이데올로기적, 전술적 단결과 집단적 책임에 근거한 ‘아나키스트 총동맹’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1. 사회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계획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오랜 토론 끝에 최초의 제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하지만 경찰 회의 의장에 나타나 모든 참가자를 체포하면서 어떠한 것도 완성되지 못했다. 마흐노는 추방될 위기에 처했고, 프랑스 아나키스트들의 투쟁이 이를 겨우 막았다. 하지만 ‘혁명적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 국제 연맹’을 위한 제안은 좌절되었고, 총회에 참가한 이들 중 일부는 이것을 더 주장하기를 포기했다.

“강령”을 향한 다른 공격은 파브리, 베르네리, 아나키스트 역사학자인 맥스 네틀로, 그리고 유명한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말라테스타에 의해 이루어졌다. 디엘로트루다는 이 공격에 대해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에게 답함’과, 1929 년 아르시노프가 저술한 “강령”에 대한 선언으로 대응했다. 아르시노프는 “강령”에 대한 반응에 실망했고, 1933 년 소련으로 돌아갔다. 그는 스탈린의 대숙청 중, ‘러시아에서 아나키즘을 복구하려 시도’하였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고, 1937 년 처형되었다.

“강령”은 국제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강령”은 일부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분열과 융합의 끝에 “강령”을 따르는 “강령주의자”들이 간헐적으로 주요 아나키스트 조직을 통제하곤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조직에서 밀려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이탈리아에서 “강령”의 지지자들은 작은 ‘이탈리아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연맹’을 건설했지만, 곧 붕괴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조직을 두고 벌어진 논쟁 끝에 불가리아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연방이 “공고한 강령” 위에, “영구하고 조직적인 아나키스트 조직을 위해”, “자유 의지주의적 코뮌주의의 원칙과 전술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강경한 “강령주의자”들은 이 조직을 인정하

기를거부했고, 그들의주관‘프루포당’을통해그들을비난했다. 이조직역시곤봉괴했다.

폴란드에서도유사한일이벌어졌다. 폴란드아나키스트연방은계급투쟁과사회혁명을통하여자본주의와국가를몰아내고, 노동자와농민의평의회와이론적단결에근간한조직으로새로운사회를건설하고자한다. 하지만그들은“강령”이권위주의적경향성을가지고있으며이를거부했다. 스페인에서는후안고메스카사스가 < 아나키스트조직 - F.A.I. 의역사 > 에서말한것처럼“스페인의아나키즘은인터내셔널이최초에스페인에도달한날부터어떻게영향력을확보하고강화할지를고민했다.”스페인아나키스트들은당시에고립을탈출하는것이나불세비키와경쟁하는것을걱정하지않았다. 스페인에서는여전히불세비키의영향력이작았다. “강령”은스페인운동에거의영향을주지못했다. 아나키스트조직인“이베리아아나키스트연방 (F.A.I.)” 이 1927 년건설되었을때, “강령”은아직번역되지않았기에논의되지못했지만, 의제에는포함되었다. 당시프랑스의스페인어사용아나키스트그룹의서기였던후안마누엘몰리나는이후카사스에게보내는편지에서“아르시노프와다른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강령은추방자들의운동이나국내의운동에아주작은영향만을주었다. “강령”은러시아혁명의빛속에서국제아나키스트운동의성격과역량을키워내고, 새롭게하고자하는시도였다. 오늘날, 우리의경험이후에, 나는“강령”은온전히인정받지못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고적었다.

세계대전은아나키스트조직의발전을방해했다. 하지만“강령”을둘러싼논란은 50 년대초반프랑스에서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연방이창설될때, 이탈리아에서프롤레타리아행동을위한아나키스트그룹이창설될때다시점화되었다. 두조직은모두“강령”을참고하였다. 그리고이경향은 60 년대후반 ~70 년대초반까지이어진브리튼혁명적아나키스트조직, 프랑스혁명적아나키스트조직등의창설까지이어졌다.

“강령”은계급투쟁적아나키스트들이더효과적인방법을, 정치적이고립, 빈곤과혼란을벗어날방법을모색하고, 마주한문제의답을찾는데있어여전히소중한역사적참고자료로남아있다.

닉히스, 1989

조직의원칙

상술한총체적, 건설적입장은혁명적아나키즘세력의조직적강령을구성한다.

이강령은결정적인전술적, 이론적지향을포함하고있으며, 조직된아나키즘운동의투자들을모아내기위한필요최소의강령이다.

강령은아나키즘운동의모든건강한요소를모아적극적이고영구적인투쟁을표방하는하나의총체적조직체, 아나키스트총동맹을구성하기위하여설계되었다. 모든아나키스트투사들의세력은이조직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두어야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기본적조직원칙은아래와같아야한다.

1. 이론적단결

이론은개인과조직의행동을목표를향해설정된경로로이끄는힘을대변한다. 자연스럽게총동맹에가입한모든개인과조직들은공통된이론을갖추어야한다. 총동맹의총체적이고, 세부적인활동들은동맹이천명한이론적원칙과완전히합치하여야한다.

2. 전술적단결, 혹은집단행동

같은논리로, 동맹안에서각개인과조직들이채택하는전술적방법론은통일성을가져야한다. 즉, 상호간에엄격히합치해야하고, 동맹의총체적이론과전술에도합치해야한다.

운동에서공통된전술은조직뿐아니라, 그운동자체의존재에있어서도중요한문제다. 공통된전술은, 서로의전술이서로와반하면서촉발될

1. 자유로운혁명적규율 (자기규율)(자발적복무와혁명적자기규율은완전히호환된다. 그리고이것이혁명군의사기를어떠한국민군보다도높일것이다.)

1. 경제/사회생활을통제하기위해대중에의해세워져전국적으로존재하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과, 그조직이대변하는노동자, 농민대중에대한완전한복종.

다르게표현하자면, 혁명의방위기구는주요한군사적전선뿐아니라, 내적전선 (부르주아지의음모, 반혁명행동의준비) 에서반혁명과의전투를책임진다. 이방위기구는전적으로노동자와농민의생산조직의관할아래에있어야한다.

주의: 군대는온전하게자유지지주의적코뮌주의의원칙에따라구성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그자체로원칙의핵심으로여겨져서는안된다. 군대의구성은혁명이촉발한결과이자, 노동자들에게강요되는내전의과정에서의전술적수단일뿐이다. 하지만우리는지금부터이전술에관심을가져야한다. 내전이빛을차질은전체사회혁명의결과에재앙을초래할수있기에, 그러한차질을예방하고혁명을수호하기위해서라도, 군대에대해서는세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2001 년의추가사항

베를린장벽붕괴의여파로촉발된아나키즘의급격한성장에따라, “강령”은신아나키즘에서반조직적경향을극복하고자하는그룹과개인들에게다시금중요한문건으로부상하고있다.

2001 년 2 월, “강령”의영향력은그어느때보다광범위하다. “강령”은터키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로번역되었다. 동유럽에서는새로운그룹들이등장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강령”이라는역사적문건이도달하기도전에이미“강령”이재발명되고있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레바논, 스위스, 영국, 폴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캐나다, 체코의아나키스트그룹들은그들의조직방법론을“강령”으로부터기인하고있다.

앤드류플러드

서문

자유주의주의적사상의힘과대체불가능한긍정적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혁명을마주함에있어나키스트들이진실되고솔직한태도를취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아나키스트들이자유주의주의적코뮌주의를실현하고자영웅적으로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스트운동이여전히약하다는것은, 아나키스트운동이노동계급의투쟁사에서단지작은사건으로, 일화로취급될뿐중요한요인으로취급되지않는다는것은중대한사실이다.

자유주의주의적사상의긍정적이고대체불가능한존재감과아나키스트운동이식물화되어있는끔찍한상태의대조는여러이유로설명될수있다. 그중가장중요한것은아나키스트운동에는조직적원칙과실천이부재하다는것이다.

모든국가에서아나키스트운동은서로모순된이론으로, 서로모순된실천을하는몇몇지역조직들로대변된다. 이들에게는미래에대하여떠한전망도, 투쟁적사업의지속성도없고, 습관적으로사라지며, 그흔적조차남기지않는다.

전체적으로받아들여졌을때, 혁명적아나키즘의이러한상태는‘총체적만성조직부전’으로만묘사될수있다.

조직부전이라는질병은마치황열병과같아서, 아나키스트운동에내포된이후십수년간그운동을흔들어왔다.

이조직부전이이론의부재로부터, 특히아나키즘에서개인성의원칙에대한잘못된해석으로부터왔다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이이론은너무자주무책임함과혼동된다. ‘자기’를주당하는것을사랑하는이들은개인적기쁨만의관점에서, 아나키즘운동의혼란한상태에완강하게매달린다. 그리고그들은이것이아나키즘과그선생들의불변의원칙이라말한다.

하지만불변의원칙과선생들은완전히반대의모습을보여준다.

노동자들의승리에대하여, 거대한군대와, 군사기술, 전략, 자본이쏟아부어질것이다.

혁명의쟁취를온조하기위해노동자들은혁명을방어하고, 반동의공세에투쟁력으로대응하기위한기구를만들필요가있다. 혁명의첫날, 무장한노동자와농민들이이투쟁력을구성하여야한다. 하지만이러한자발적무장력은초기에만유효할것이다. 내전이최고조로치닫고, 양측에서정식적으로구성된군사기구를만들고나면, 그유효성은줄어든다.

사회혁명의가장핵심적인순간은권위의억압중이아니다. 오히려패배한체계의세력이노동자들을향한총체적공세를시작할때, 혁명을보장하는것이문제로도출될때가가장핵심적이다. 이공세는, 그리고내전은노동자들이혁명군을조직할수밖에없게할것이다. 혁명군의요지와핵심적원칙이먼저결정되어야한다. 우리가국가주의적이고권위주의적인통치를거부하는만큼, 우리는노동자의군사력을조직하는국가주의적방법론(즉, 징병제에기반한국민군) 도거부한다. 자유주의주의적코뮌주의의근본적입장에따라, 노동자의군대를구성하는기반은자발적복무의원칙이되어야한다. 러시아혁명에서군사행동을이끈빨치산, 노동자, 농민으로구성된반란군분대가그예시가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자발적복무”와빨치산활동은그단어그대로만이해되어서는안된다. 즉, 노동자와농민들이총체적작전계획에따른협동도없이각자의책임과위험을안은채로지역의적들에대한각개전투를시행하는것으로이해되면안된다. 이시기빨치산들의활동과전술은일반적혁명전략에따라집행되어야한다.

모든전쟁이그러하듯이, 노동자들이군사행동에있어서의두가지기본원칙, 즉작전계획에있어서의단결과지휘체계의통일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승리할수없다. 혁명의가장결정적순간은부르주아지가조직된세력으로써혁명을공격해올때찾아온다. 이결정적순간에노동자들은군사전략의원칙을받아들여야한다.

그렇기에군사전략에의해만들어진필요와반혁명의전술을모두고려할때, 무장혁명세력은통일된지휘체계와작전계획을가진혁명군에근거를두어야한다. 이군대는다음과같은원칙을근거로할것이다.

1. 계급적성격의군대
1. 자발적복무 (혁명을방어하는데있어모든강제성은제외되어야한다.)

성할 농업체계가혁명의운명에결정적요인이될것인이상, 그리고농업에서사적경제가사유재산을구축하고자본을부활시키게될것인이상, 우리는농업의문제를집단적방법으로해결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그러기위해우리는농민들에게집단적농업경제에대한끊임없는선전을시작해야한다.

자유지지주의적농민조합의창설은이과업의달성을크게도울것이다.

이관점에서농업의진화를촉진하고, 도시에서코뮌주의를실현할수있게끔할기술적진보는매우중요하다. 만약, 산업노동자들이개별적으로나독자적그룹이아닌산업의모든분야를총괄하는코뮌주의적집단으로써농민들과관계를맺는다면, 그들이농촌의필요성을고려하여농촌에도구와기계를제공한다면, 이것이농민들을농업코뮌주의로이끌수있을것이다.

혁명의방어

‘혁명첫날’의문제중에는혁명의방어에관한문제도포함된다. 기본적으로혁명을방어하는가장강력한수단은생산, 소비, 토지의문제를공정적으로해결하는것이다. 이문제들이올바르게해결된다면, 노동자들의자유로운사회를다른것으로대체하거나, 그균형을깨려는반혁명是不能할것이다. 물론노동자들은그사회의공고한존재를유지하기위해혁명의적들과의혹독한투쟁을진행해야한다.

사회혁명특권층과비노동계급의존재를위협한다. 그렇기에사회혁명은이계급들을대변하는절실한저항을마주할것이며, 격렬한내전이촉발될것이다.

러시아에서의경험이보여준바, 이러한내전은수개월의문제가아니라, 수년의문제가될것이다.

혁명초기에도노동자들이얼마나즐겁건간에, 지배계급들은오랫동안저항할역량을유지할것이다. 수년간그들은혁명에대한공세를퍼붓고, 그들이빼앗긴권력과특권을재확보하려할것이다.

분산과산발성은파괴적이다. 단단히묶인동맹이생명과발전의현현이다. 이처럼느슨한사회적투쟁은계급에뿐만아니라조직에있어서도동일하게드러난다.

아나키즘은아름다운유토피아도, 추상적철학의이데아도아니다. 아나키즘은노동대중의사회운동이다. 그렇기에아나키즘은, 현실과계급투쟁의전력이요구하는바에따라그힘을하나의조직에모아끊임없이소란을일으켜야한다.

크로포트킨은“우리는러시아의아나키스트조직을구성하는것이결코공통된혁명적과업에해롭지않다는것에동의한다. 오히려조직을구성하는것은매우가치있고유용할것이다.”(바쿠닌의 < 파리코뮌 > 서문에서)

바쿠닌도아나키스트의총체적조직이라는개념을반대하지않았다. 오히려그조직에대한열망과, 그가1차인터내셔널에서행했던활동들은바쿠닌이이러한조직의열정적투사라바라보는것이합당하게만든다.

전체적으로, 사실상모든적극적아나키스트투사들은분열된활동에대항하여투쟁했다. 그리고그들은목적과수단에서단결로묶인아나키스트운동을갈망했다.

1917년러시아혁명의복판에서, 총체적조직은가장깊고가장긴급하게요구되었다. 혁명의복판에서자유지지주의운동의분파주의와혼란은가장크게드러났다. 총체적조직의부재는많은적극적아나키스트투사들을불세비키의명에아래로몰아넣었다. 총체적조직의부재가또한많은현대의투사들을소극적으로만들고, 그힘을모두사용하지못하게만들고있다는사실도고려해야만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운동의참가자다수가모여, 아나키즘을일반적이고전술적인방침으로하여전체운동을선도할조직의필요성을느끼고있다.

이제아나키즘이조직부전의늪을떠날때가, 가장중요한전술적, 이론적질문에대한대답을망설이는것을벗어날때가, 명확하게인식된목표를향해단호하게움직일때가, 조직된집단실천을시행할때가되었다.

하지만이러한조직의필요성을확립하는것으로는부족하다. 그건설의방법론을확립하는것역시필요하다.

우리는아나키즘의서로다른경향의대표자들을다시모아놓는다는‘통합’의방식이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서투르기에이를거부한다. 다층위의이론적이고실천적인요인들을포함하는이러한형태의조직은단지아나키스트운동의질문에대해서로다른답을가진개인들을기계적으로모아놓는것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이모임은현실을마주하는순간필연적으로다시분해될뿐이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의방법론은아나키스트조직의문제를풀어내지못한다. 이방법론은산업프롤레타리아의문제를일점돌파하여그영역에서힘을얻는데에만집중하기때문이다.

아나키스트의총체적조직이없다면, 이영역에서는많은것을, 심지어거의어떤것도얻어낼수없을것이다.

우리가보기에, 총체적조직의문제의해답을끌어낼수있는유일한방법론은적극적아나키스트투사들을정확한위치에기반하여, 이론적/기술적/조직적으로단일한계획에근거하여배치하는것이다.

이러한계획을고민하는것은최근의사회적투쟁에있어아나키스트들에게주어진핵심적과제라할수있다. 그리고이과제가추방당한러시아아나키스트그룹이그노력을기울여헌신하고자하는과제가기도하다.

조직적강령은이계획의윤곽을, 뼈대를그려내고자작성되었다. 강령은자유지의주의세력을투쟁할수있는, 하나의, 적극적인혁명적집단, 아나키스트총동맹으로묶어내는첫걸음이될것이다.

우리는현재의강령에비약이있다는것을분명하게인지하고있다. 강령은모든새로운, 실질적인, 중요한단계들이그러하듯비약을가지고있다. 중요한내용이빠져있거나, 어떤내용은불충분하게다루어지고, 어떤내용은너무세밀하게반복적으로다루어지고있을수도있다. 중요한것은총체적조직의기반을놓는것이다. 그리고현재의강령으로써, 그목적은필요한만큼달성되었다.

조직을확대하고, 깊이를더하며, 전체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결정적강령으로만들어내는과업은전체집단에, 아나키스트총동맹에게주어졌다.

다른한편우리는의구심을가지고있다. 우리는일부자기식개인주의와혼돈의아나키즘의대변인들이거품을물고우리를공격할것임을, 우리

고발전시키는데에필요한모든것을제공하는가장중요한기구가되어야한다. 이협동체는도시와농촌사이의영구한공동기구로바뀔것이다.

소비재를제공하는문제에대한해결책은프롤레타리아트가영구한생산물의산물을만들어새로운생산양식의결정적효과를결과로써가질수있게할것이다.

토지

농업문제의해결에있어, 우리는타인의노동력을착취하지않는자영농과농촌의임금프롤레타리아트를주된혁명적세력이라간주한다. 이들의과업은경자유전의원칙과코뮌주의원칙에따라토지의재분배를확립하는것이다.

산업과마찬가지로토지는수세대간노동자들에의해경작되어왔으며, 그공통된노력의산물이다. 토지역시모든노동대중에게속하며, 어떠한특정인에게도속하지않는다. 토지를사고팔거나임대하는것은발생해서는안된다. 토지는타인의노동을착취하는수단으로이용되어서는안된다.

또한토지는대중과공동체의일반인들이생활의수단을생산하는작업장이기도하다. 하지만이작업장은, 역사적조건에따라, 모든노동자(농민)들이모든일을혼자, 다른생산자들과무관하게진행하는데익숙한작업장이다. 산업의영역에서집단적생산은필수적인것이지만, 농민들은스스로의힘으로토지를경작한다.

결과적으로농민들이토지와그경작수단을손에넣고, 그것을팔거나임대할수없다면, 그것을이용하는형태의문제, 그리고(공동체, 또는가족에의한) 경작방법의문제는, 산업의영역에서와는달리즉각적이고완전하며결정적인해결책을발견할수없을것이다.

토지의경작과이용의방법은외부적압력을통해서가아니라, 혁명적농부들스스로가확립해야한다.

하지만, 우리가사회혁명이후건설할코뮌주의사회가노동자들에게속과착취에서구원하고, 노동자들에게완전한자유와평등을줄것이라 믿는이상, 농민들이대중의다수를구성하고있으며, 결과적으로그들이구

소비

혁명의과정에서소비의문제는두가지형태로나타날것이다.

1. 생산물탐색과소비의원칙
1. 분배의원칙

소비재를분배하는데있어, 그해결책은가능한생산량과분배대상
의자유로운합의의원칙에의존해야한다.

사회혁명는다소질서의총체적재건으로써, 모든인민의 (반혁명적이
유를위해생산에참여하는것을거부한비노동자집단은예외로하자) 생활
적필요를충족해야할의무가있다. 하지만총체적으로, 혁명의역역에서
모든사람의필요를만족시키는것은소비재의전체재고에의해확보될수
있을것이다. 물자가부족하다면, 가장필요로하는사람, 즉아이와병약
자, 노동자의가족들에게우선분배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분배되어야할
것이다.

더어려운문제는소비의기반을조직하는것이다.

혁명의첫날부터농장들이전체인구의삶을유지할만큼의생산을감당
하지못할것임은의심의여지가없다. 동시에농민들은도시와달리필요로
울것이다.

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자들은도시노동자들과농업노동자들간에
상호주의적관계가존재한다는것에대하여의심하지않는다. 우리는사회
혁명은노동자와농민들의공통의노력으로만실현될수있다고판단한다.
결과적으로소비의문제를해결하는것은이두종류의노동자들간의혁명
적으로끈끈한협동으로만가능한것이다.

이러한협동을확립하기위해, 생산의수단을확보한도시노동계급은
농촌노동계급의생활적필요를공급해야하고, 농업집단에게매일의생산
물을제공하기위해분투해야한다. 농민의필요라는지점에서노동자들에
의해체현된연대는농민들이같은행동을하도록하여, 그들의집단적노동
의생산물을도시에게제공하도록할것이다.

노동자와농민의협동체는도시와농촌이식량과생산재의필요를만족
하는것을확립하게하고, 나아가노동자/농민의경제/사회생활을보장하

가아나키스트의원칙을부수고있다고발할것임에견할수있다. 하지
만, 우리는개인주의적이고혼돈스러운요소들은‘아나키스트의원칙’을
정치적무관심, 태만, 무책임으로받아들이고있음을, 그로써우리의운동
을치유불가능한분열로, 우리의투쟁에반하는영역으로가져가고있음을
알고있다. 이것이우리가이들의공격을평온하게무시할수있는이유다.

우리는다른투사들에게희망을둔다. 아나키스트운동의비극을경험
하고, 그로부터고통받았음에도여전히아나키즘에신실하여고통스럽게
해결책을찾고있는사람들말이다.

나아가우리는러시아혁명의숨결로태어나, 건설적문제들의태동기
에위치해있는청년아나키스트들은반드시아나키즘의긍정적이고조직
적인원칙들이실현되는것을요구하리라는것에희망을둔다.

우리는모든세계각국으로흩어진러시아아나키스트조직들모두가,
고립된투사들모두가, 공통의조직강령에근거하여단결할것을촉구한
다.

이강령이혁명의척추가되게하자! 이강령이러시아아나키스트운동
의투사들의집결지가되게하자! 이강령이아나키스트총동맹의근간을구
성하게하자!

세계노동자의사회혁명만세!

파리디엘로트루다그룹, 1926.6.20

총칙

1. 계급투쟁, 그역할과 의미

- 단일한인류는없다.
- 계급적인간만이존재한다.
- 노예와주인들

오늘날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인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는 그 상태와 역할에 따라 사회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진영으로 나뉜다. 한편에는 (광의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있고, 한편에는 부르주아지가 있다.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수세기 동안 고통스러운 육체적 노동을 감내 하여왔지만, 그 과실은 그들이 아니라 자산, 권위, 문화적 생산물 (화학, 교육, 예술) 을 소유한 다른 자들, 부르주아지에게 돌아갔다. 노동대중에 대한 사회적 노예화와 착취는 현대 사회가 발을 디딘 근간이 된다. 이러한 노예화와 착취가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로써 어느 시점에는 공개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다른 때에는 외형상 드러나고 불가시한 계급투쟁이 형성된다. 계급투쟁은 계급적 필요, 필수,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의의 반영이다.

사회적 영역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노동대중의 권리, 자유, 더 나은 삶을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연쇄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계급투쟁은 언제나 사회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였다.

모든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체제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모든 사회의 근본적 구조는 우리에게 계급투쟁이 모아내고 발견될 수 있는 무대로 보여진다. 계급투쟁의 세력들의 상대적 위치에 발생하는 가장 작은 변화조차도 사회의 구조에 지속적인 수정을 야기한다.

이것이 총체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계급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역할이라 하겠다.

생산

한 나라의 산업은 수세대에 간 노동자들이 쏟아온 노력의 결과에 따르며, 산업의 서로 다른 분야들이 서로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전체 생산을 모든 노동자가 동시에 일하고 있는 하나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생산기능은 국제적이며, 전체 노동계급에 속한다. 이 테제는 새로운 생산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한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은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지점에서, 생산은 또한 국제적이며 일반적인 것이다. 어떤 범주에 속해 있건, 생산물들은 노동자 전체에게 제공되는 일반기금으로써,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생산의 체계는 모든 형태의 관료제와 착취를 대체하고, 형제애적 협동과 노동자의 연대의 원칙을 그 자리에 대체해 넣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관리 계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산 계급 (소상인 등) 은 부르주아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새로운 방식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계급들은 스스로 노동자의 사회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사장도, 기업가도, 소유주도, 국영 공장 관리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은 새로운 생산 방식을 노동자에 의해만 들어진 행정 (노동자의 소비에트, 공장 위원회, 혹은 노동자의 자주 경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구들은 코뮌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는 총체적이고 연방적인 생산 관리의 측면에서 상호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기구들은 대중에 의해 스스로 건설되고, 대중의 통제와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며, 꾸준히 대중에 의한 자주 경영이라는 이상을 갱신하고 실현해야 한다.

생산수단이 모두에게 귀속되어 있는 통합적 생산은 관료제를 형제애적 협동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며, 노동자가 통제하고 노동자가 선출한 기구에 의한 생산 통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유의 지주의 적 코뮌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향한 첫 번째 실질적인 계가 될 것이다.

건설의원칙

노동자투쟁의근본적목표는혁명을통해자유롭고평등한코뮌주의사회를, “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하는”원칙에따라건설하는것이다.

하지만이사회는스스로이루어지지않고, 오직사회적봉기의힘을통해서만이루어진다. 이사회의원칙은영광된노동자의조직된세력이명확한길위에서선도하는사회혁명적과정을통해서만가능하다.

지금부터시작하여이길을지적하는것이, 사회혁명의첫날부터발생할수밖에없는구체적문제들에대한안을구성하는것이우리의과업이라하겠다.

새로운사회를건설하는것은노동자이부르주아자본주의체제와그대변인들에게승리한이후에가능한것은자명하다. 새로운경제와새로운사회적관계를국가의권력과예속의체제가여전한상황에서, 노동자들과농민들이산업과농업을통제하지못한상황에서건설하는것은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사회혁명의첫번째과업은자본주의체제에내재한국가주의적조직을분쇄하고, 이를통해권력의수단으로대변되는부르주아와특권계급의요소들을수용하고, 노동자들의반란의지를확립해내는것이다. 혁명의이러한공세적이고파괴적인측면은사회혁명의의미와요점을구성하는과업들을달성하는길을열것이다.

그리고다음과같은과업들을해결해야할것이다.

1. 산업생산의문제를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관점에서해결.
1. 농업의문제를자유의지주의적코뮌주의의관점에서해결.
1. 소비의문제를해결

2. 폭력적사회혁명의필요성

대중에대한폭력적노예화와착취의원리는현대사회의기반을구성한다. 경제, 정치, 사회적관계등의원리의존재적현현은계급적폭력에의존한다. 계급적폭력의도구는권위, 경찰, 군대, 사법부등이있다. 사회의모든것은, 모든기구를독립적으로보면, 국가의전체체제마저도, 자본주의의성벽에지나지않는다. 이성벽에서그들은노동자들을끊임없이주시하고, 사회의가장사소한것을, 근간을위협하는어떠한운동이라도힘으로탄압할준비를마치고있다.

동시에사회의체계는노동대중을무지와정신적인빈곤의상태로유지한다. 사회의체계는노동대중의사기와지적수준을높이는것을억제한다. 그렇게하는것이체계에더도움이되기때문이다.

자본의기술적진화와정치체제의완성이라는현대사회의진보는지배계급의권력을공고히하고, 지배계급에대항하는투쟁을더욱어렵게만들어서노동해방의결정적순간을연기한다.

현대사회에대한분석을통해우리는자본주의사회를자유로운노동자들의사회로변혁하는유일한방법은폭력적사회혁명을통한방법밖에없음을결론내릴수있다.

3. 아나키스트와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

노동자의노예화와그로부터자유로워지려는열망으로부터축발된계급투쟁은억압속에서도아나키즘의이상, 계급과국가에기반한사회체계를온전히도태시키고, 이를노동자자주경영에근거한자유롭고비국가주의적인노동자들의사회로대체하고자하는사상을낳았다.

그렇기에아나키즘은학자나철학자의추상적개념으로부터비롯하지않는다. 아나키즘은자본주의에대항하는노동자의직접투쟁으로부터비롯한다. 이투쟁은노동자의필요와필수로부터나오고, 노동자의자유와평등에대한열망으로부터나오며, 그열망은노동대중의투쟁속에서, 인생의가장영웅적인시기가되었을때살아난다.

바쿠닌, 크로포트킨등의위대한아나키스트사상가들은아나키즘의사상을발명하지않았다. 오히려그들은그사상을대중으로부터발견했

다. 그들의 사상과 지식은 이를 구체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에도 왔을 뿐이다.

아나키즘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물도, 개인적 연구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아나키즘은 인본주의적 열망의 산물이다. 단일한 인류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을 오늘날 인류에 대한 현사로만 만들고자 하는 시도, 아나키즘에 전체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짓에 불과하다. 이 거짓은 필연적으로 현상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착취를 정당화할 것이다.

아나키즘은 대중이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어하며, 현재나 미래의 인류의 운명은 착취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관점에서만 인본주의적이다. 만약 노동대중이 승리한다면, 모든 인류는 다 시 태어날 것이다. 만약 노동대중이 패배한다면, 폭력, 착취, 노예제, 억압은 언제나처럼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아나키스트 사상의 탄생, 개화, 실현은 노동대중의 삶과 투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아나키스트 사상은 노동대중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

아나키즘은 현대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를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의 생산물을, 자유를, 독립성을, 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로 변혁시키기를 원한다. 이 다른 사회는 자유의 지주의적 코뮌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와 자유로운 개인은 최대로 드러날 것이고, 이 두 이상은 완벽히 조화를 이룰 것이다.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는 물리적이건 지적이건, 사회적 가치의 유일한 창조자는 노동자라고 믿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만이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는 비노동계급의 존재를 옹호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의 사회에 존재하는 한, 비노동계급이라도 어떠한 무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이다. 비노동계급이 생산적이 되고, 다른 이들과 같은 조건 아래 코뮌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자유로운 구성원으로써,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고 싶어할 때 중단될 것이다.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는 개인과 인민대중을 향한 모든 착취와 폭력을 멈추고자 한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모든 부문을 단결시키

트들을 엮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반이 될 때에만,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는 '아나키화'될 수 있고, 기회주의와 개량주의로 향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주의는 일관성 있는 사회적/정치적 이론이 없는 노동자들의 모임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사회적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 아나키스트들의 과업은 그 운동 안에서 자유지주의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 운동을 자유지주의적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 운동을 사회혁명의 적극적 무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주의가 아나키즘 이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노동조합주의는 결국 국가주의적 정당 의 이데올로기로 돌아설 것이다.

혁명적 노동자 운동에서 아나키스트들의 과업은 노동조합 바깥의 아나키스트 조직과 그 활동을 엮어냄으로써 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혁명적 노동조합을 아나키스트의 총체적 조직의 방향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된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아나키스트적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노동조합에 이론적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소규모 실험적 집단이 아닌 엄격하게 조직된 아나키스트 집단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소규모 실험적 집단으로는, 조직적 연계도, 이론적 합의도 없다.

회사, 공장, 작업장에서의 아나키스트 그룹들이 아나키스트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혁명적 노동조합의 투쟁을 조합주의에 내재한 자유지주의적 이상으로 선도하게끔 하고, 이 그룹들을 아나키스트의 총체적 조직의 행동으로 다시금 조직하는 것. 이것이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

만약아나키즘이 고통받는 대중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면, 사회혁명의 깃발이 되고 싶다면, 아나키즘은 옛체제의 흔적 위에 강령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행기라는 기회주의적 경향들처럼, 근본적 원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가장 날카롭게 발전시키고, 적용시켜야만 한다.

8. 아나키즘과 조합주의

우리는 조합주의가 자유의지주의적 코뮌주의에 반하는 경향이라 판단하며, 그것이 인공적이고, 근본도의 미도 없는 것이라 본다.

아나키즘과 조합주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이념이다. 코뮌주의, 즉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사회는 아나키스트 투쟁의 목표인 반면, 조합주의, 즉 혁명적 노동자들의 직장에서의 운동은 혁명적 계급 투쟁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혁명적 조합주의는, 다른 직업 그룹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생산에 기반하여 단결시키기 위한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혁명적 조합주의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혁명적 조합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모임들의 이데올로기를 튕겨낼 뿐이다.

혁명적 조합주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리해보자. 혁명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질문, 즉, 혁명적 노동조합이 새로운 생산의 조직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 역할을 노동자 소비에트나 공장 위원회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미루어 두자. 우리는 아나키스트들이 혁명적 노동운동으로써 혁명적 조합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아나키스트들이 혁명적 조합주의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아나키스트들이 조합주의 운동에 개인으로써, 선전가로써 진입하여 온 현대까지의 시기를, 노동운동을 향한 기능공의 관계의 시기라 바라본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는 혁명적 조합주의의 좌익에 자유의지주의적 이상을 부여하여 아나키즘 성격의 노동조합을 만들려 한다. 이것은 전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실증적 방법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나키즘적 조합주의가 노동조합 운동의 ‘아나키화’를 그 운동 바깥에서 조직된 아나키스

고,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최대의 후생을 확립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 기반은 생산의 수단과 도구 (산업, 운수, 토지, 원자재 등) 에 대한 공동소유가, 평등과 노동계급의 자주경영이라는 원칙 위에 건설된 경제조직이 될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의 한계 속에서, 자유의지주의적 코뮌주의는 각개 개인의 가치와 권리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확립한다. (이것은 “총체적” 개인성이나, “신비로운 개인성”이나, 개인성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개인을 의미한다.)

4.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의 한 형태일 뿐

민주주의의 근간은 현대 사회의 두 대립적 계급,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계급의 혼합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혼합은 의회와 민족대의 정부로 드러난다.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단결의 자유, 평등을 법으로 규정한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자유들은 상대적이다. 이 모든 자유는 그것이 부르주아지와 같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의 원칙을 불가침의 원칙으로 보존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가 전체 경제를, 언론을, 교육을, 과학을, 예술을 통제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이것이 부르주아지를 그 사회의 절대적 주인으로 만든다. 경제생활권을 독점함으로써 부르주아지는 정치권에서 무제한적 권력을 확립할 수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바의 회와 대의 정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의 형상 뒤에, 허구의 민주적 보장 뒤에 숨은 부르주아 독재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5. 국가와 권위에 대한 부정

부르주아이에올로기는 국가가 복잡한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며 법과정의를 수호하는 기구라고 정의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이 정의에 완전히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의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법과정의의 근간이 대다수 인민이 소수에 예속되는 것이라는 명제가 있어야,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목적이라는 논의가 있어야 이 정의가 완전해질 것이다.

국가는 부르주아가 확보한 조직된 폭력임과 동시에, 그 집행 기구의 체계다.

좌파들, 특히 볼셰비키들 역시 부르주아 국가와 권위가 자본에 복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권위와 국가가 사회주의 정당의 손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들은 ‘사회주의적’ 권위와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위한 존재들이다. 이들 중 일부 (사민주의자들)는 권력을 평화적, 의회주의적 수단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다른 이들 (볼셰비키, 사회혁명당 좌파)은 권력을 혁명적 수단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아나키즘은 이들 모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노동해방 투쟁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권위는 언제나 인민 대중의 착취와 예속에 의존한다. 모든 권위는 착취로부터 태어났거나, 착취를 위해 창조되었다. 폭력과 착취가 없는 권위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국가와 권위는 대중으로부터 모든 주도권을 앗아가고, 창조와 자유로운 행동의 영혼을 죽이며, 그들에게서 복종을, 기대를, 사회적 사다리를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지도자를 향한 맹신을, 권위를 나누고 있다는 환상을, 노예의 심리 상태를 길러낸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은 오로지 광대한 노동대중의 직접적 혁명 투쟁과 자본주의 체계에 대항하는 계급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질서를 긍정적인 채평화로운 수단으로 사회민주당이 권력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해방이라는 과업에서 단 한 발짝도 전진하는 길이다. 실질적인 힘,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권위는 경제와 정치를 통제하는 부르주아 지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형태에서 사회주의

이러한 정치적 최소강령을 확립하는 대신, 아나키스트들은 언제나 즉각적 사회혁명을 주장해왔다. 사회혁명을 통해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박탈하고, 생산수단과 경제·사회생활의 기능들을 노동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아나키스트들은 이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행기에 대한 개념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해구 체제적 요소를 갖춘 어떠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도 분명히 반사회적이다. 이행기는 언제나 해구 체제적 요소들이 다시금 힘을 찾고 사회를 퇴행시키는 위협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가장 혹독한 예시는 볼셰비키들이 러시아에서 확립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라 할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완전한 코뮌주의를 향한 이행기적 단계에 불과해야 한다. 현실에서, 이 단계는 언제나 처럼 노동자와 농민이 제일 바닥에 있는 계급 사회의 재건으로 귀결되었다.

코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의 중점은 모든 개인들에게 혁명의 첫날,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기반을 쟁취하고, 개인의 평등한 관계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까지 포괄해야 한다. 풍족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할 근본적 원칙은 관계의 평등에 관한 원칙과 노동자의 자유와 독립성에 관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회혁명을 위해 일어난 대중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요구를 대변한다.

사회혁명이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 다시 투쟁과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승리로 끝나 노동자가 토지, 생산수단, 사회적 기능의 수단을 손에 쥐는 경우가 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코뮌주의 사회의 건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과 사회의 기능들을 노동자가 장악하는 것은 국가의 시대와 비국가 시대를 정확하게 경계짓는 선이 될 것이다.

론적추동력은오직이목적만을위해대중이건설한집단을통해서표현되어야만한다. 아나키스트조직이그집단을정확히구성한다.

이집단의이론적이고실천적인의무는혁명의시기에매우크다.

아나키스트조직은그주도권을드러내고, 사회혁명의모든영역에총체적으로참여해야한다. 혁명의지향과총체적성격을결정하는과정에서, 혁명의긍정적과업들에, 새로운생산과소비에, 농민의문제에, 이모든영역에참여해야한다.

모든문제들에대해대중은아나키스트들로부터명확하고구체적인답변을요구한다. 그리고아나키스트들이혁명과사회구조에관한이론을선언하는순간부터, 아나키스트들은모든질문에대하여명확하게답변하고, 그질문들을자유지주의적코뮌주의의일반이론과연관짓고, 이것을실현하기위해전력으로헌신할의무가생긴다.

아나키스트총동맹과아나키스트운동은, 오직이방법을통해서만사회혁명의이론적추동력으로써자신의기능을다할수있을것이다.

7. 이행기

사회주의정당들은‘이행기’라는단어를“구체제질서를떨쳐내고새로운경제적/사회적체계를건설하는데 (이체계를통해노동자의완전한해방은이루어지지않지만) 필요한”절대적시기라이해한다. 그렇기에모든사회주의정당의최소강령 (그목적은자본주의사회의완전한변혁이아니라노동계급이마주하는즉각적문제를해결하는것) 은이행기강령이다. 이를테면, 사회주의적기회주의자들의민주주의강령이나, 공산주의자들의‘프롤레타리아독재’강령같은것말이다.

이행기강령들은노동자의이상, 즉독립성과자유와평등을완전히쟁취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것을상정한다. 그렇기에결과적으로자본주의체계의기구들인국가적강제, 생산수단의사적소유, 관료제등을당의강령적목표에따라남길수밖에없다.

원칙적으로아나키스트들은이러한강령들을반대해왔다. 아나키스트들은착취와대중강제의원칙을유지하는이행기체계를건설하는것은필연적으로새로운노예제를건설할것이라믿는다.

적권력의역할은체제변혁이아닌개량으로축소된다.(독일, 스웨덴, 벨기에등의사회민주당을보라)

사회적봉기를통해“프롤레타리아국가”를조직함으로써권력을확보하는것역시노동의진정한해방이라는대의에전혀복무할수없다. 혁명을방어하기위해세워졌어야할국가는그자신의필요와성격에따라불가피하게왜곡된다. 국가는그자체로목표가되고, 특정한특권계층을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자본주의적권위와국가를, 언제나대중에대한폭력적에속과착취를재확립하게된다.(볼셰비키의“노동자-농민국가”를보라)

6. 사회적투쟁과사회혁명에서대중과아나키스트의역할

사회혁명의핵심적세력은도시노동계급, 농민대중, 그리고노동인텔리겐차의일부이다.

주의: 노동인텔리겐차는도시/농촌프롤레타리아트와같은방식으로착취되고억압받고있지만, 인텔리겐차들은노동자와농민에비해단결력이약한경향이있다. 이것은부르주아지가인텔리겐차에게노동자와농민에비해경제적특권을허용하여주기때문이다. 이것이인텔리겐차계층의가장불우한일부만이사회혁명에초기부터적극적으로참여하는이유다.

아나키스트들과국가주의정당들은대중이사회혁명과사회주의를건설하는과정에서해야하는역할에대하여서로다른개념을가지고있다. 볼셰비키와그와유사한경향들은대중이오직과거적인혁명본능만을가지고있어, 창조적이고건설적인작업을할수없다고본다. 그렇기에창조적이고건설적인작업은국가의정부를구성하는당중앙위원회의손에맡겨져야한다는것이다. 반면아나키스트들은노동대중들이거대한창조적이고건설적인가능성을가지고있다고믿는다. 그리고아나키스트들은이가능성의실현을막고억제하는장애물을치우기를열망한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가가장핵심적인장애물이라믿는다. 국가는대중의권리를빼앗고, 그들의경제적, 사회적생활기능을앗아간다. 국가는미래“언젠가”해소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 즉각적으로해소되어야한다. 국가는노동자혁명의첫날, 노동자들의손으로파괴되어야한다. 그리고

국가는어떠한형태로도다시구성되어서는안된다. 국가는생산자와소비자가스스로운영하는노동자조직의단결한연방으로대체될것이다. 이체계는일당독재와같은모든형태의권위주의조직을배격할것이다.

1917 년의러시아혁명과정에서노동자와농민의소비에트, 공장위원회설치과정은사회적해방의과정을정확하게보여준다. 러시아혁명의서글픈요류는, 적절한시기에국가권력의조직을청산하지못했다는것이다. 임시정부에대해그러했고, 그에뒤이은볼셰비키권력에대해서도그러했다. 볼셰비키들은노동자와농민의지지를등에엮고부르주아국가를재조직했고, 그국가를지지하고유지하는과정에서결과적으로대중의창조적활동을말살했다. 볼셰비키는국가가없는사회주의사회를향한첫걸음을상징하던소비에트와공장위원회의자유로운체계를무너트렸다.

아나키스트의행동은혁명전과혁명중으로나누어볼수있다. 두지점모두에서아나키스트들은투쟁의목표와그목표를실현할방법에대한명확한인지를가진조직된세력으로써만그역할을다할수있다.

혁명전시기아나키스트총동맹의근본적과업은노동자와농민들을사회혁명을위해준비시키는것이다.

공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권위와국가를거부하는것에서, 노동해방의완성을선포하는것에서아나키즘은계급투쟁의철저한원칙을강조해야한다. 아나키즘은대중의계급의식과혁명적비타협성을갖추어나가야한다.

특히계급적비타협성에대해, 반민주주의에대해, 아나키즘적코민주의의반국가주의에대해대중에대한자유지지주의적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교육만으로는불충분하다. 대중적아나키스트조직역시필요하다. 이를실현하기위해, 두가지방향의작업이필요하다. 한편으로는혁명적노동자와농민들을자유지지주의적코민주의의이론적기반에따라묶어낼필요가있다.(구체적자유지지주의적코민주의조직건설) 다른한편으로는, 혁명적노동자와농민들을소비와생산이라는경제적기반에따라다시묶어낼필요가있다.(혁명적노동자와농민의생산조직, 그리고노동자와자유농민의협동조직) 노동자와농민계급이생산과소비에기반하여조직되고, 이조직에혁명적아나키스트가침투할때, 이조직은사회혁명의가장강한지점이될것이다.

이조직들이아나키스트적방법론으로의식화되고조직될수록, 이조직들이혁명의순간비타협적이고창조적인지를더많이드러낼것이다.

러시아의노동계급에관하여말하자면, 대중의자유로운활동에대한요구를묶어두었던볼셰비키독재 8 년간, 권력의본성이어느때보다잘드러났다. 러시아노동계급은그안에아나키스트대중운동구성에관한거대한잠재력을숨기고있었다. 조직된아나키스트투사들은즉시온힘을다해그요구와가능성을만족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래야그요구와가능성이개량주의로타락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권력에의해부서지고, 그로부터탈출할길을찾는, 마찬가지로거대한혁명적잠재력을가진빈농조직과도함께해야한다.

혁명시기아나키스트의역할은자유지지주의적이상에대한선전선동만으로써제한되어서는안된다. 삶은이런저런사상들의선전을위한경기장이아니다. 삶은투쟁과전략과경제/사회생활의운명을위한사상적열망의장이다.

다른그어떤사상보다도, 아나키즘은혁명을선도하는사상이되어야한다. 아나키즘적이론에근거할때만사회혁명이완전한노동의해방에서공할수있기때문이다.

혁명시기아나키즘의이상이선도적위치를잡는것은, 그이론을따른사건의방향성을요한다. 하지만이론적추동력은국가주의당들의정치적리더십과혼동되어서는안된다. 정치적리더십은결과적으로국가권력만을낳을뿐이다.

아나키즘은정치적권력이나독재따위를원하지않는다. 아나키즘의가장큰열망은대중이사회혁명으로가는바른길을택하는것을, 사회주의를건설하는것을돕는것이다. 하지만대중들이사회혁명으로가는길을선택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혁명의방향성과목표, 즉자유로운노동자의이름으로자본주의사회를철폐하는것을유지하는것역시필요하다. 러시아혁명의경험이보여주었듯, 이과업은결코쉽지않다. 무엇보다수많은당들이운동의방향을사회혁명에반하는방향으로지도하려하기때문이다.

대중들이아나키즘적경향성을통해사회혁명에있어서스스로를깊게표현한다하더라도, 이경향성은분산되고, 통일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자유지지주의적이상으로추동된조직을, 아나키즘적지향과목표를혁명에서유지하는데필요불가결한조직을만들지못한채로남을수밖에없다. 이